

로컬리더스

한준수 군산시 신임 부시장
'활력 넘치는 농어촌도시 만들겠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을 최우선으로 품격이 넘치는 도시, 100세 건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활력 넘치는 농어촌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일 전라북도 국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군산시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한 한준수 부시장의 소감이다.

새롭게 부임하는 한준수 부시장은 전주 고교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완산구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전북도 환경농지국장 등을 거쳐 다양한 행정경력을 쌓아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왔다.

한 부시장은 "재민급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군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분야

군산시, '최고 등급 선정'

군산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을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를 16개 분야 102개의 항목별로 구분해 규제환경을 조사 분석해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연말에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해 평가·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17위)에 선정됐으나 전국규제지도 공개에 따른 규제지수 개선의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과 전 부서에 걸친 규제제도(자치법규) 개선 노력으로 2016 평가에서는 무려

전년 대비 143단계가 오른 34위로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음식점 창업과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5개 항목평가에서는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군산시는 ▲창업자금 지원(341억) ▲기업경영자금 지원(439억) 등 기업유치지원과 더불어 ▲테라스 영업 허용 ▲공장설립 인허가 개선 ▲물류창고 인허가 개선 등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친화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전 부서 및 직원의 규제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기업이 군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해 기업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투자자와 고용창출에 매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걷어내고,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여전히 낮은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7년도에는 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상위법 일치,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제·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정유년 새해 시무식, 재도약 다짐

익산시가 2017년 정유년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 행사를 2일 오전 11시경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갖고 올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및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 및 직원 간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에 앞서 팔봉 군경묘지와 여산 충혼탑에 들러 순국선열 참배를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그동안 일궈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미련하여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일지리를 창출하여 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체질을 강화하고 전국 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구 복지서비스 등 시민의 삶,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을 글썽 없이 추진해서 "그동안 일궈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여가·문화공간으로 '우뚝'

군산청소년수련관이 다양하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흥으로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인 R.I.C.E가 지난해 전국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장성복 청소년수련관 지원협의회 위원장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정락영 사무국장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동아리지도자 박수주 실무자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

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관내 초·중·고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지원 사업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및 탐색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사업, 청소년수련활동,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스포츠 활동, 청소년 인성인권, 청소년지구시민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청소년수련관은 2017년에도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진로교육 및 활동, 진로부어, 청소년 리더십 자 연체활동 등 청소년 생애주기 에 맞춰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청소년 진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이원영 관장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호원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내 시립대 최초 인증 획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전북도내 시립대학 중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는 교육기본연간에 해당하는 전입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평가분야를 통과한 대학에 한해 대학인증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개 평가영역의 10개 부문 30개 준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평가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내실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AI 청정지역 사수 '총력'

지난해 AI가 심각단계까지 격상되는 사태에서도 AI 청정지역 사수에 성공한 익산시는 휴일인 1월1일에 새해 첫 공식회의를 AI 방역회의로 실시하고 다시 한 번 청정익산 사수를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통방역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가 아직도 활발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

철새도래지 금강, 만경강 망성 어랑 천 일원에 축산과 축련, 하립방제단 등을 총동원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관내 가금류 사육 농가 158농가에 대해서 전화회찰, SMS를 통하여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2개소 운영 중이던 AI

거점통제소소를 여산과 논산 경계인 1번 국도변에 1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든 익산시에 출입할 때에는 거점통제소소를 통과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완료 했다.

전국적인 AI 발생 현상을 보면 전체 발생농가 중 산란계 49%, 오리 43%로 두 축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시는 관내 산란계 4농가, 오리 5농가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AI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학교 시무식

학교 발전·건강과 행복 염원

원광대학교 2017년 시무식이 2일 오전 9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무식에는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대학 및 병원 구성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성원 상호 간 세배를 통해 학교 발전을 기원하고, 건강과 행복을 염원했다.

신명국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먼저 교육이 변해야 하고, 대학이 시대를 쫓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광학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중 총장은 "대학 4.0시대를 맞



아 원광의 저력으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이끌어 가자"고 강조하고, "교육, 연구, 창·취업, 학과기업 분야 등 학과 지속가능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원광대학을 재정비하자"고 말했다.

또한 "신산업에 대비하는 교육정책 및 과정 실천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아시아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시무식

든든한 생활치안·출발 다짐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에서는 2일 경찰서 대동마루에서 경찰서장, 각과·계장을 비롯한 경찰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무식을 열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치안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본 행사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직인신년사 대독, 시무식 동영상 시청, 경

찰가 제창에 이어 서장 및 참석 직원들이 서로 악수와 격려로 상호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성중 서장은 "지난해에 전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도내 치안종합성과 3위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며, 국민을 위한 치안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새해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익산경찰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Advertisement for 'Hongsamju' (홍삼주) featuring a bowl of soup,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the beverage.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